

#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경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 The Influence of the Faculty-Students Interaction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n the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Kyeong Sook Jeong  
Department of Nursing, Busan Institute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B시 소재한 3개 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22년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Mann-Whitney U-test,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5점 만점에 평균 4.27점,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4.12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학업활동과 개인심리가 4.36점으로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8점으로 확인되었다. 전공만족도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r=.62, p<.001$ ), 대학생활적응( $r=.74,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의 영향요인은 대학생활적응 중 개인심리( $\beta=.38, p<.001$ ), 사회체험( $\beta=.23, p=.001$ ), 학업활동( $\beta=.16, p=.009$ )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중 친밀감( $\beta=.20, p=.002$ )이었으며, 설명력은 총 64.7%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과 교수와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과 함께 다양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n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0 nursing students in a college located in B city from April 15 to April 21, 2022, and analyzed using SPSS Ver. 21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Mann-Whitney U-test, the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participant faculty-student interaction level was 4.27, mean college life adjustment level was 4.12, and mean satisfaction with major discipline level was 4.38. Satisfaction with major disciplin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aculty-student interaction ( $r=.62, p=.022$ ) and college life adjustment ( $r=.74, p<.001$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satisfaction with major discipline were personal psychology ( $\beta=.38, p<.001$ ), social participation ( $\beta=.23, p=.001$ ), academic activities ( $\beta=.16, p=.009$ ), and relationships with professors ( $\beta=.20, p=.002$ ), which had an explanatory level of 64.7%. Based on these findings, to improve nursing student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discipline, college life adjustment programs and a means of improving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and professors are required.

**Keywords** : Satisfaction in Major, Faculty-Students Interaction, College Life Adjustment,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Kyeong-Sook Jeong(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jksbook@hanmail.net

Received November 9, 2023

Accepted February 6, 2024

Revised December 11, 2023

Published February 29, 202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시기는 전공과 관련된 이론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공과 연계된 실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선택한 전공 관련 직업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시기이다[1]. 특히 간호교육은 이론과 함께 실습을 병행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비증이 매우 크고 추후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전공 수업은 매우 중요하므로 대학 생활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2-4]. 전공만족도란 전공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관계와 기회, 환경에서 개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게 되는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의 정도를 의미하며[5], 자신의 이상이나 진로, 미래 직업의 기준이 된다[6]. 최근 간호학과 학생들은 적성이나 흥미를 이유로 간호학을 선택하기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이나 수입, 합격 위주의 대학진학 등을 이유로 간호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7]. 하지만 간호학은 이론수업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실습에 대한 부담, 사람에 대하여 배우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적성과 흥미를 잃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8].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태도 형성과 신념에 장애가 된다[9].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전공만족도는 간호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 과정이므로[10]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조절하는 환경적 요인 중 지도교수 제도 및 교수 상담과 같은 교수-학생 상호작용 요소가 있다[11].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수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기반 위에 교육적 상황에서 학생들의 행동적, 심리적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통해 유지되는 교수와 학생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12]. 그러나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은 감염병예방을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선후배, 동기 뿐 아니라 교수와의 교류도 줄어들게 하는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13].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입학 시부터 꼭 짜인 교육과정에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는 교과과정도 교수-학생 간의 관계 형성에 물리적 장애로 작용하기도 하지만[14] 입학 시부터 교수-학생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긍정적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한다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에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10].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요구와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심리적 과정으로[15]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 대인관계와 과외 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며 자신이 속한 대학이나 학생에 대해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이다[16]. 그러나 다년간 지속되었던 비대면 사회생활로 인해 대학이나 학과의 중요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어 대학환경을 충분히 알아가지 못해 대학생활에 대한 명확성을 저하시키고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저하시키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13]. 대학생활의 부적응은 전공에 대한 흥미 부족으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졸업 후에도 직업과 업무환경 적응에 어려워 잦은 이직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4]. 또한, 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통하여 경험된 사실과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기대와의 부합 정도에 따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공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은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4].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영향요인으로는 학업탄력성[17], 낙관적 탄력성, 사회적 자기효능감[18] 등이 있었으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대학생활적응을 영향요인의 변인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대학생활적응이 전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 3개 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참여하기를 희망한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선행연구[1,19]에서 2학년은 1학년이나 3학년보다 전공만족도 정도가 낮게 확인되며, 대부분 간호학과와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전공수업이 시작되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제시하는 바에 의해 최소 2회 이상의 교수-학생 면담이 이루어진 학년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G\*power program 3.1.9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medium .15, 검정력 .90, 예측변수 수 9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의 표본크기는 141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최종 16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는 없었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에게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응답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과 연구 종료 즉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교수-학생 상호작용

Wubbels와 Levy[20]의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사-학생 관계척도 (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를 수정한 Kim과 Han[2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친밀감 9문항, 신뢰감 9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을 의미한다. Kim과 Han[21]의 연구에서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의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 .91~.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 .88~.89, 전체 Cronbach's  $\alpha$  = .93이었다.

#### 2.3.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Jeong과 Park[2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 .70~.79, 전체 Cronbach's  $\alpha$  =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  = .71~.84, 전체 Cronbach's  $\alpha$  = .92이었다.

####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Ha와 kim[23]이 개발한 학과(학부)만족 도구 중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Lee[24]가 추출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재(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이었다

### 2.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1.0 program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는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 하지 않아 비모수검정인 Mann-Whitney U-test,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여학생이 93.8%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20.3세이었다. 자의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대상자는 93.8%이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는 57.5%로 가장 많았다. 교수와의 면담 횟수는 2회 이하가 73.1%이었으며, 5회 이상 면담한 대상자도 7.5%나 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10	6.3
	Female	150	93.8
Age(year)	≤19	56	35
	20	73	45.6
	21	16	10.0
	≥22	15	9.4
			(20.3±2.78)
Major selection	Own will	150	93.8
	Someone else's will	10	6.3
Type of residence	With parents	92	57.5
	Dormitory	27	16.9
	Lives alone	39	24.4
	etc.	2	1.3
Number of interviews	≤2	117	73.1
	3-4	31	19.4
	≥5	12	7.5

### 3.2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평균평점은 4.27 ± 0.56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인 친밀감은 4.21 ± 0.59, 신뢰감은 4.33 ± 0.58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의 평균평점은 4.12 ± 0.62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학업활동 4.36 ± 0.54점, 진로준비 3.92 ± 0.86점, 개인심리 4.36 ± 0.64점, 대인관계 3.86 ± 0.91점, 사회체협 4.10 ± 0.83점이었다. 전공만족도는 4.38 ± 0.47점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2. Degrees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College Life Adjustment and Satisfaction in Major.

Variables	M±SD
Faculty-Student Interaction	4.27±0.56
Friendly	4.21±0.59
Responsible	4.33±0.58
College Life Adjustment	4.12±0.62
Academic Activities	4.36±0.54
Career preparation	3.92±0.86
Personal Psychology	4.36±0.64
Interpersonal relations	3.86±0.91
Social Participation	4.10±0.83
Satisfaction in major	4.38±0.47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성별 (U=392.5  $p=.010$ ), 나이( $\chi^2=2.65$ ,  $p=.019$ ), 전공선택 주체(U=480.0  $p=.028$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 분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Satisfaction in Major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U(or $\chi^2$ ) (p)
Gender	Male	4.41±0.46	392.5 (.010)
	Female	4.01±0.53	
Age(year)	≤19	4.50±0.47	9.92 (.019)
	20	4.35±0.44	
	21	4.11±0.55	
	≥22	4.39±0.48	
Major selection	Own will	4.40±0.46	480.0 (.028)
	Someone else's will	4.06±0.61	
Type of residence	With parents	4.36±0.48	1.43 (.698)
	Dormitory	4.47±0.39	
	Lives alone	4.39±0.51	
	etc.	4.19±0.67	
Number of interviews	≤2	4.12±0.63	3.56 (.169)
	3-4	4.14±0.64	
	≥5	4.10±0.62	

### 3.4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전공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r=.623$ ,  $p<.001$ ), 하위영역인 친밀감( $r=.644$ ,  $p<.001$ ), 신뢰감( $r=.550$ ,  $p<.001$ )과, 대학생활 적응( $r=.743$ ,  $p<.001$ ), 하위영역인 학업활동( $r=.604$ ,  $p<.001$ ), 진로준비( $r=.468$ ,  $p<.001$ ), 개인심리( $r=.732$ ,  $p<.001$ ), 대인관계( $r=.622$ ,  $p<.001$ ), 사회체협( $r=.655$ ,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with Satisfaction in Major,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College Life Adjustment

Variables	Satisfaction in Major
subareas	
	$r(p)$
Satisfaction in Major	1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623(<.001)

Intimacy	.644(<.001)
Confidence	.550(<.001)
College Life Adjustment	.743(<.001)
Academic Activities	.604(<.001)
Career preparation	.468(<.001)
Personal Psychology	.732(<.001)
Interpersonal relations	.622(<.001)
Social Participation	.655(<.001)

### 3.5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영향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성별, 전공선택 주체와 나이를 더미 처리한 후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Dubin-watson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96으로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486~0.597로 0.1이상이며 VIF가 1.675~2.057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의 개인심리( $\beta=.38, p<.001$ ), 사회체험( $\beta=.23, p=.001$ ), 학업활동( $\beta=.16, p=.006$ )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친밀감( $\beta=.20, p=.002$ )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64.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F=73.84, p<.001$ )(Table 5). 그러나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전공선택 주체와 나이는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Satisfaction in Major in participants

(N=160)

Variables	$\beta$	t	p	Adjusted $R^2$	Dubin Watson
(constant)		6.67	<.001	.647	2.05
College Life Adjustment : Personal Psychology	.38	5.07	<.001		
College Life Adjustment : Social Participation	.23	3.42	.001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 Intimacy	.20	3.19	.002		
College Life Adjustment : Academic Activities	.16	2.65	.009		

$R^2=.656, \text{adjusted } R^2=.647, F=73.84,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4.27점으로, 간호학과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같은 도구로 4학년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3.87점 [25]보다 높았으며, 무용과 2학년 학생의 신뢰감 3.68점, 친밀감 3.43점보다 높았다[21]. 이는 간호학과의 경우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 생활, 진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면담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행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선행연구[25]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결과이나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교수와의 대면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교수와 학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까지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한 것이라 여겨진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4.1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2~4학년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 3.32점보다 높았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가 3.8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KO의 연구[27]에서는 대인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Kim의 연구[26]에서는 학업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4.3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1] 3.87점보다 높았다. 이는 1학년과 2학년의 전공만족도가 고학년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10]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성별, 나이, 전공선택 주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0]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취업할 수 있는 간호보건계열의 지원 학생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 중심적 직업인 간호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과 직업의 안정성으로 남학생들의 지원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

다[28,29].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더불어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남학생은 자신의 성별이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척이 될 된 남자간호사의 진로를 개척하는 것에 도전을 생각하는 등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30]는 결과와 상통한다고 할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학생이 지도교수와의 친밀한 관계유지 및 지도교수의 전반적인 지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31], 교수와 학생이 신뢰를 바탕으로 친근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고 그 신뢰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될 것이며 대학생활에 만족스러운 학생들은 실제로 학업과 진로에 대해 잘 적응하여[32] 스스로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하위영역 중 진로준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조사 시기가 이제 막 전공을 시작한 2학년의 학기 초에 이루어져 진로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의 개인심리, 사회체험, 학업활동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친밀감이 확인되었으며, 총 64.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F=73.84, p<.001$ ). 이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적응의 개인심리로 나타났다. 개인심리는 대학생으로서 책임감과 도전의식을 갖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으로 자아정체성과 용기 등이 포함되며, 보다 긍정적이며 대학생이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심리적 도전과 관련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22]. 최근 우리 사회는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들로 인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가 전문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의 직종선택 기회 확대와 진로도 다양해지고 있다[19,33]. 이러한 부분은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쳐[34]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힘든 교육과정에 도전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어 전공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저학년의 교양 교육과정에서부터 직업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통한 책임감과 도전의식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

해 간호학문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학생활 적응의 사회체험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 자원봉사는 전공을 살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자기계발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5]. 특히 대부분의 간호학과에서는 전공 관련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간호학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36]. 그러므로 대학은 단순히 봉사시간 인정을 위한 형식적인 활동보다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 체험이 간호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수나 선배와의 멘토링 등을 확대하여 사회체험이 전공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활 적응 중 학업활동 또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학업활동은 학업에 충실하고 전공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성실성과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22],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간호학의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인한 전공에 대한 부정적 영향[37]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켜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 중 친밀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수진과 학생 간 신뢰와 친밀감 형성이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8]와 유사하였다. 친밀감은 상대방과 정서적 결속감이나 연대감을 가짐으로써 물리적, 정신적 거리가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다[21]. 간호교육인증평가가 시행된 이후 학생과 교수와의 면담이 정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교류가 이어진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시기가 2학년 1학기 초반부 시점으로 전공교과목이 시작되어 지도교수 역시 학생의 학과 적응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인 상담 진행이 전공에 대한 관심과 호의적 태도, 긍정적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어 전공만족감 향상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생의 전공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11]으로 생각되므로, 수업 시간이나 수업 시간 이외에서도 신뢰와 친밀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교수-학생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대학생활적응의 개인심리, 사회체험, 학업활동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친밀감으로 확인되었다.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추후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유지하는 것 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39] 양질의 전문직 간호사 인력양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17]. 그러나 본 연구는 일 대학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의 사회체험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파악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H.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2007.
- [2] H. J. Shin, H. J. Park,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22, pp.643-664, 2017.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7.17.22.643>
- [3]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5, pp.2178-2186,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178>
- [4] Y. J. So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013.
- [5] B. R. Seo, K. S. Lee, "Satisfaction in Major,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27 No.1 pp.87-116, 2018.
- [6] S. K. Park, H. S. Lee, "The effect of perceived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of the hotel tourism management department",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Vol.12, No.1, pp.219-235, 2016.
- [7] Y. J. Kim, H. N. Yoo, M. J.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261-270,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0.261>
- [8] S. H. Shin, J. W. Lee, S. H. Shin, C. T. Kim, "The Relationship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0 pp.95-107,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0.95>
- [9] D. Barron, E. West, &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12, No.1, pp.S1-46-51, 2007. DOI: <https://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 [10] S. H. Shin, J. W. Lee, C. T. Kim,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on their Engagement in the Maj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7 pp.136-145, 2020.
- [11] H. S. Hyun, Y. Y. Kim, "Moder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4 No.1, pp.29-38, 2018.
- [12] T. Wubbels, J. Levy, "A comparison of interpersonal behavior of Dutch and American tea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15, No.1, pp.1-18, 1991. DOI: [https://dx.doi.org/10.1016/0147-1767\(91\)90070](https://dx.doi.org/10.1016/0147-1767(91)90070)
- [13] K. A. Lee, H. W. Son, "A Study on the College Adapt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Students in Post Corona Er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5, pp.239-254, 2021.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5.239>
- [14]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27-36, 2014. DOI: <http://dx.doi.org/10.5977/ikasne.2014.20.1.27>
- [15] N. Kim, *The impact of conflict, self-efficacy and motional expression of college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2012.
- [16]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No.2, pp.179-189, 1984.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31.2.179>
- [17] G. O. Noh,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Academic Resilience on the Level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3 No.2, pp.205-213, 2017. DOI: <http://dx.doi.org/10.5977/ikasne.2017.23.2.205>

- [18] D. J. Kim,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0 No.2, pp.244-254,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44>
- [19] H. E. Jo, Y. H. Ahn, S. M. Ryu, J. Y. Lim, H. J. Kim, "The Effect of the Image of Nurses and the Major Satisfaction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Oil Chemists' Society*, Vol.36, No.3, pp.1008-1017, 2019.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19.36.3.1008>
- [20] T. Wubbels, J. Levy, A comparison of interpersonal behavior of Dutch and American tea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15, No.1, pp.1-18, 1991.
- [21] H. J. Kim, S. Y. Han, "The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physical self-efficacy and dance ability achievement",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21, pp.1-19, 2010.
- [22]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1, No.2, pp. 69~92, 2009.
- [23] H. S. Ha, K. H. Kim,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pp.7-20, 2000.
- [24]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4.
- [25] J. H. Park D. U. Kang, J. M. Kang, N. H. Gwak, C. E. Kim, M. K. Lee, "The association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image of nurses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1, pp.101-112, 202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101>
- [26] J. K. Kim, W. J. Kim, S. J. Lee, "Correlation of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7, pp.120-126, 2020.
- [27]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10, pp.280-291,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10.280>
- [28] R. J. Meadus., J. C. Twomey, "Men Student Nurses: The Nursing Education Experience", *Nursing Forum*, Vol.46, No.4, pp.269-279, 2011.  
DOI: <https://doi.org/10.1111/i.1744-6198.2011.00239.x>
- [29] H. J. Yun, "A study on the Adaption Process of Experienced Male Nur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7, pp.209-217, 2016.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6.6.7.021>
- [30] J. H. Ahn,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7, pp.537-547, 2019.
- [31] J. H. Choi, M. J. Park,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Method to Evaluat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7, pp.339-349,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7.339>
- [32] J. H. Kim, J. H. Lim, "Male Nursing Students Majoring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College Adapt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 pp. 91-100,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1.132016>
- [33] H. S. Park, et al,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3, No.1, pp.35-45, 2018.  
DOI: <https://doi.org/10.21032/jhis.2018.43.1.3>
- [34] K. S. Jeong, "The Influence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and Nurse's Image on Job-estee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6, pp.166-173,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6.166>
- [35] Y. H. Joh, "A Study on Theoretical Framework of College Volunteering with special reference on service learn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9, No.3, pp.243-268, 2002.
- [36] H. Kim, "Community Care Facilities Volunteer Activity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9 No.1, pp.807-818, 2018.  
DOI: <http://dx.doi.org/10.22143/HSS21.9.1.64>
- [37] K. M. Yang,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445-453,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445>
- [38] S. D. Kim, Y. K. Lee, "The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University Member Interaction of Major Satisfaction and Sports Related Majoring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2 No.4, pp.341-352, 2014.
- [39] S. H. Kim, M. J. Back,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3, No.3, pp.409-419, 2019.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9.33.3.409>



정 경 숙(Kyeong Sook-Jeong)

[정회원]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자아존중감, 걱정, 건강증진행위